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의 補氣血安神 처방
8首에 대한 번역연구

- 번역 및 『古今名醫方論』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金成煥¹ · 李容範^{1,*}

Translational Study on 8 Prescriptions of
Strengthening GiHyeol[補氣血] and
Tranquilization[安神] in the book I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The
Elimination and Supplement about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 Focused on Translation and Comparative Discussion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

Kim Seung-hwan¹ · Lee Yong-bum^{1,*}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t the book I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The Elimination and Supplement about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22 prescriptions are recorded. At the first part of the book, it mainly described about the prescriptions of invigorating Gi[補氣], which is followed by the prescriptions on enriching blood and nourishing vital essence fluid[補陰血], and the prescriptions on strengthening Gihyeol[補氣血] and tranquilization[安神] are described at the last part of the book. At the current review, the 8 prescriptions of strengthening Gihyeol[補氣血] and tranquilization[安神] of the last part of the book I will be translated, and compared with the similar related comments in the book of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to review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formula, prescriptions notes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contents.

In terms of formula, the order of prescriptions to strengthen Gihyeol[補氣血] could be listed from the indirectly strengthening prescriptions to the directly strengthening prescriptions. In addition, the list of prescriptions will be sequenced by following the order of weak strengthening prescriptions to the strong strengthening prescriptions. The order of tranquilization prescription must be ordered for the symptoms showing mild psychological symptoms to severe symptoms in terms of severity of symptom, and will be ordered from the prescriptions highly dependent on invigorating Gi[補氣] to the prescriptionless dependent

on invigorating Gi[補氣]. In the way of controlling Premier Fire[相火], these prescriptions are ordered from the prescriptions that use indirect methods to the prescriptions that use direct methods.

Characteristics of the prescription notes could be mentioned that the herbs of invigorating Gi(補氣) is pivotal in strengthening Gihyeol[補氣血] and the sour flavor and pungent flavor acted as negative and positive[陰陽的] when sour flavor and pungent flavor are used to enrich liver, and that sweet flavor could easily indigested to cause abdominal distension.

When comparing with the content of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it mostly adopted the content as it is, but differentiation of the formula and addition of 2 new prescriptions with their explanation in the middle of the book could be considered to be creative aspect that helped the convenience of readers.

Key Words :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Uijongseungam(醫宗金鑑),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Sanbomyeong-uibangnon(刪補名醫方論),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Gogumyeong-uibangnon(古今名醫方論), strengthening Gihyeol [補氣血], tranquilization[安神]

I. 序論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에는 22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는데, 처음부분에는 주로 補氣 방제가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補陰血 방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補氣血 및 安神에 대한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補氣 처방과 補陰血 처방에 대하여는 이미 번역하였으나, 여기에서는 卷一의 마지막 부분인 補氣血 및 安神하는 처방 8개에 대하여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유관조문과 비교하여, 편제와 방론의 특징, 그리고 내용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 교신저자: 이용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전화 : 033-730-0668, E-mail : A95005@Gmail.com

1)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1). pp.65-74.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陰血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3). pp.67-77.

1. 연구대상 및 방법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의 黃芪健中湯 雙和飲 人參養榮湯 歸脾湯 妙香散 天王補心丹 酸棗仁湯 朱砂安神丸 등 補氣血安神하는 8개의 처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유관조문과 그 내용을 비교하여, ‘내용비교’의 항에서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古今名醫方論』의 원문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1) ‘내용같음’ -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같은 경우. 문장 중 일부가 다르고, 문자상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수정보충된 내용이 없고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 ‘내용같음’으로 평가하였다.

2) ‘수정보충’ -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거의 같으나, 加減法 方論 등의 기재에 있어서 수정 혹은 보충한 것이 있으면 ‘수정보충’으로 평가하였다.

3) ‘내용다름’ - 『古今名醫方論』에 인용된 方論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내용다름’으로 평가하였다.

4) ‘없음’ - 『古今名醫方論』에 없는 경우,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2. 底本

『醫宗金鑑』: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²⁾

『古今名醫方論』: 羅美 著.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3. 句讀와 해석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III. 本論

【원문】

黃芪建中湯

○治虛勞裡急，悸衄腹中痛，夜夢失精，四肢痠痛，手足煩熱，咽乾口燥，諸不足諸證。○黃芪 膠飴 白芍 甘草 桂枝 生薑 大棗。上七味，水煎服。

【集註】○喻昌曰：虛勞而至于亡血失精，津液枯槁，難爲力矣！『內經』于鍼砭所莫治者，調以甘藥，『金匱』遵之而立黃芪建中湯，急建其中氣，俾飲食增而津液旺，以至充血生精，而復其真陰之不足。但用稼穡作甘之本味，而酸辛鹹苦在所不用，蓋舍此別無良法也。然用法貴立于無過之地，不獨嘔家不可用建中之甘，卽微覺氣滯，更當慮甘藥太過，令人中滿也。至大建中則大建其中之陽，小建中則小小建立之義，理中則變理之義，治中則分治之義，補中溫中，何莫非先中州之義。緣傷寒外邪逼入于內，法難盡用，仲景但于方首以“小”之一字，微示其意，至『金匱』始盡建中之義。後人引仲觸類，制藥令建中湯十四味建中湯，曲暢建中之旨。學者心手之間，所當會其大義也。

【해석】

황기건중탕

○ 虛勞하여 속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고(裏急), 가슴이 두근거리고(心悸), 코피가 나고(衄血), 뱃속이 아프며, 꿈 속에서 사정하고(夢精), 팔다리가 시큰하고 아프며(四肢酸痛), 손발이 달아오르고 열이 나고(手足煩熱), 목구멍이 마르고(咽乾), 입이 건조한(口燥) 등의 모든 부족한 증상을 치료한다. ○ 황기 교이 백작 감초 계지 생강 대추. 이 일곱 가지를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 喻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虛勞하여 亡血 失精하고 진액이 마른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內經』에 “침이나 펴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甘藥으로 調理한다.”³⁾고 하였고, 『金匱』에서는 『內經』의 이러한 학설을 따라서 황기건중탕을 立方하여, 그 中氣를 급히 안정시켜 음식을 잘 먹고 진액이 왕성해지게 하여, 血을 보충하고 精을 생성시켜, 眞陰이 부족한 것을 회복하게 하였다. 다만 『書經·洪範』에서 말한 ‘稼穡作甘’의 土의 本味인 甘味만 활용되고 酸辛鹹苦의 味가 활용되지 않은 것은, 대체로 이외에 별다른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法을 사용하는 데에는 지나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비단 평소 구토하는 사람에게 건중탕의 甘味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甘味를 맛보아도 氣가 滯하는 사람도 甘藥이 과다하여 中滿을 일으킬까 더욱 조심해야 한다. 대건중탕은 그 中의 陽을 크게 세운다는 뜻이고, 소건중탕은 조금씩 세운다는 뜻이며, 이중탕은 調理의 뜻이고 치중탕은 分治의 뜻이니, 補中과 溫中의 의미에서 어떤 것도 中洲(脾胃)를 우선시 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傷寒의 外邪가 안으로 뒹박하여 들어온 경우에는 이 방법만으로 끝까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중경이 다만 처방이름의 머리에 ‘소’ 한 글자로 그 뜻을 약간 내보였고, 『金匱要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건중탕의 뜻을 다 밝혔다. 후세 사람들이 이 의미를 응용하여 유사한 종류에 끌어다가 락령건중탕이니 십사미건중탕 등을 만들었는데, 이는 建中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학문하는 사람은 마음 쓰고

2)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p.273-275.

3) 南京中醫學院中醫系 編著.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45. “諸小者, 陰陽形氣俱不足, 勿取以鍼, 而調以甘藥也.”

행동하는 사이에서 그 큰 뜻을 마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에도 喻昌의 方論이 인용되어 있어, 그 내용은 거의 같으나, 여기에서는 내용 중의 일부가 빠진 곳이 있고, 축약된 곳이 있다. - 내용 같음.

【원문】

雙和飲

○治大病之後，虛勞氣乏。補血益氣，不熱不冷，溫而調之。○白芍二錢 黃芪(炙)一錢半 甘草(炙)七分 中桂七分 當歸一錢 熟地黃一錢 川芎七分。生薑三片，大棗二枚，水二盞，煎一盞，溫服。

【註】 此湯乃李杲以黃芪建中湯減飴糖合四物之方也。黃芪建中，治虛勞不足，是從脾胃中化生血氣。此則直補陰血，兼之溫養陽氣，所以減飴糖之甘，加純陰之品，名曰雙和也。地骨皮飲，其意在涼血熱，故佐二皮以清之。聖愈湯，其意在救血脫，故佐參芪以補之。雙和飲，其意在溫養血氣，故佐芪桂炙草以溫之。『經』曰：形不足者，溫之以氣。是也。

【해석】

쌍화음

○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虛勞로 氣乏한 경우를 치료한다. 補血하고 益氣하며, 熱하게 하지도 않고 冷하게 하지도 않으며, 溫하게 하여 조절한다. ○ 백작 2돈, 황기(구운 것) 1돈반, 감초(구운 것) 7푼, 육계 7푼, 당귀 1돈, 숙지황 1돈, 천궁 7푼, 생강 3쪽, 대추 2개, 물 2사발로 1사발이 되게 달여서 따뜻하게 먹는다.

【註】 이 탕은 李東垣이 황기건중탕에서 飴糖을 빼고 사물탕을 합방한 것이다. 황기건중탕은 虛勞不足을 치료하는데, 脾胃의 中化작용으로부터 血氣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 처방은 陰血을 직접 보충하고 겸하여 陽氣를 溫養하는데, 飴糖의 甘味를 빼고 純陰의 약제를 가하였기 때문에 雙和라고 이름한 것이다. 지골피음은 그 뜻이 血熱을 涼하게 하는 데 있기 때

문에 지골피 목단피로 보좌하여 淸게 한 것이다. 성유탕은 그 뜻이 血脫을 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인삼과 황기로 보좌하여 보충한 것이다. 쌍화음은 그 뜻이 血氣를 溫養하는 데 있기 때문에 황기 육계 구운 감초로 보좌하여 溫하게 한 것이다. 『내경』에 말하기를 “形이 부족한 것은 氣로 그것을 溫하게 한다.”4) 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내용비교】

이 처방은 『古今名醫方論』에 없다. - 없음.

人參養榮湯

○治脾肺俱虛，發熱惡寒，肢體瘦倦，食少作瀉等證。若氣血虛而變見諸證，弗論其病其脈，但用此湯，諸證悉退。○人參 白朮 茯苓 甘草 黃芪 陳皮 當歸 熟地 白芍 桂心 遠志 五味子。上十二味，加薑三片，棗二枚，水煎服。

【集註】 ○柯琴曰：古人治氣虛以四君子，治血虛以四物，氣血俱虛者以八珍，更加黃芪肉桂，名十全大補，宜乎萬舉萬當也。而用之有不獲效者，蓋補氣而不用行氣之品，則氣虛之甚者，幾無氣以運動；補血而仍用行血之物，則血虛之甚者，更無血以流行。故加陳皮以行氣，而補氣者悉得效其用；去川芎行血之味，而補血者因以奏其功。此善治者，只一加一減，便能轉旋造化之機也。然氣可召而至，血易虧而難成，苟不有以求其血脈之主而養之，則營氣終歸不足。故倍人參爲君，而佐以遠志之苦，先入心以安神定志，使甘溫之品，始得化而爲血，以奉生身。又心苦緩，必得五味子之酸，以收斂神明，使營行脈中而流于四藏。名之曰養榮，不必仍十全之名，而收效有如此者。

【해석】

인삼양영탕

○脾와 肺가 함께 허약하여, 發熱하면서 惡寒하고, 팔다리가 마르고 나른하며, 식욕이 줄고 설사하는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만약 氣血이 허약하여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변화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병과 맥

4)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04.

의 여부를 막론하고 다만 이 탕을 사용하면 모든 증세가 다 물러갈 것이다. ○ 인삼 백출 복령 감초 황기 진피 당귀 숙지 백작 육계 원지 오미자. 이상 12가지에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서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 ○ 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사람들은 氣虛는 사군자탕으로 치료하고 血虛는 사물탕으로 치료하였으며, 氣와 血이 모두 虛한 것은 팔진탕으로 치료하였는데, 다시 황기 육계를 가하여 십전대보탕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온갖 경우에 다 마땅할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하고도 효험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다. 대개 補氣하되 行氣시키는 약을 사용하지는 않으면, 氣虛가 심한 자는 氣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며, 또 補血하면서 그대로 行血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血虛가 심한 자는 流行할 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피를 가하여 行氣시키면 補氣하는 것이 그 작용에 다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천궁 같은 行血하는 약제를 제거하면, 補血하는 약제가 그로 인하여 공효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잘 치료하는 의사는 다만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도, 바로 造化의 기틀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氣는 불려서 오게 할 수 있지만 血은 손상되기 쉽고 생성되기는 어려우니, 만약 그 血脈의 主(氣를 말할)를 救하여 補養함이 없다면 營氣는 결국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삼을 배가하여 君藥으로 삼고, 원지의 苦味로 佐藥을 삼아 먼저 心藏에 들어가서 安神定志하게 하여, 甘溫한 약재로 하여금 비로소 변화되어 血이 될 수 있게 하여, 身을 살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또 心臟은 緩을 싫어하므로⁵⁾, 반드시 오미자의 酸味를 얻어야 神明을 수렴하여, 營血로 하여금 脈中을 운행하여 四臟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이 처방에 ‘養榮’이란 이름을 붙였으니, 十全이란 이름을 반드시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거둬는 이것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같다. - 내용

같음.

【원문】

歸脾湯

○治思慮傷脾, 或健忘怔忡, 驚悸盜汗, 寤而不寐, 或心脾作痛, 嗜臥少食, 及婦女月經不調. ○人參 龍眼肉 黃芪 甘草 白朮 茯苓 木香 當歸 酸棗仁 遠志. 薑三片 水煎服.

【集註】 ○羅謙輔曰: 方中龍眼, 棗仁, 當歸, 所以補心也; 參, 芪, 朮, 苓, 草, 所以補脾也. 薛己加入遠志, 又以腎藥之通乎心者補之, 是兩經兼腎合治矣. 而特名歸脾何也? 夫心藏神, 其用爲思; 脾藏智, 其出爲意, 見神智思意火土合德者也. 心以經營之久而傷, 脾以意慮之鬱而傷, 則母病必傳之子, 子又能令母虛, 所必然也. 其病則健忘怔忡, 恍惕不安之徵見于心也; 飲食倦怠不能運輸, 手足無力, 耳目昏眊之證見于脾也. 故脾陽苟不運, 心腎必不交, 彼黃婆者, 若不爲之媒合, 則已不能攝腎氣歸心, 而心陰何所賴以養? 此取坎填離者, 所以必歸之脾也. 其藥一滋心陰, 一養脾陽, 取手健者, 以壯子益母. 然恐脾鬱之久, 思意不通, 故少取木香之辛且散者, 以暢氣醒脾, 使能速通脾氣, 以上行心陰. 脾之所歸, 正在斯耳. 張璐曰: 補中益氣與歸脾同出保元, 並加歸朮, 而有升舉胃氣, 滋補脾陰之不同. 此方滋養心脾, 鼓動少火, 妙佐以木香少許, 調順諸氣, 暢和心脾. 世醫不諳此理, 反以木香性燥不用, 服之多致痞悶減食者, 以其補藥多滯, 不能輸化故耳.

【해석】

귀비탕

○ 생각을 많이 해서 脾臟을 손상하여, 혹은 健忘怔忡 驚悸 盜汗 不眠 등의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心脾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嗜臥 少食 및 月經不調 등 증상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 인삼 용안육 황기 감초 백출 복령 목향 당귀 산조인 원지 생강 3쪽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 ○ 羅謙輔⁶⁾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방

5) 『素問·藏氣法時論』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315-316.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6) 羅謙甫는 李東垣의 제자인 羅天益으로 元代의 인물이다. 그러므로 明代의 薛己의 말을 인용할 수 없다. 『古今名醫方論』에는 羅東逸로 되어 있는데, 羅東逸은 『古今名醫方論』의 저자인 羅美이다. 그러므로 羅謙甫는 羅東逸의 잘못이

중의 용안육 산조인 당귀는 心을 補하는 것이고, 인삼 황기 백출 복령 감초는 脾를 補하는 것이다. 薛己가 원지를 가하여 또한 腎의 약 중에서 心에 통하는 것으로 보충하였으니, 두 개의 경락(심과 비)에 腎을 겸하여 함께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歸脾湯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왜인가? 心은 神을 간직하는데 그 작용은 思가 되며, 脾는 智를 간직하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意가 되니, 神智思意가 火와 土의 德이 합쳐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心은 일을 경영하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손상되고, 脾는 意慮가 鬱滯됨으로써 손상되니, 心의 병이 반드시 자식인 脾에 전달되고 脾의 병이 또한 어미인 心을 허약하게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心과 脾가 병들면 心에서는 健忘 怔忡 不安의 징조가 나타나고, 脾에서는 음식에 손상되고, 권태로우며, 運化 輸送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手足에 힘이 없으며 耳目이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脾陽이 만약 운행이 안 되면 반드시 心腎不交가 일어나니, 저 매과(脾)가 心腎을 교통시키는 중개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이미 腎氣를 통섭하여 心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心陰이 어느 곳을 의지해서 滋養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坎水를 가져다가 離火를 채우는 데에 그 책임을 반드시 脾에 귀착시키는 이유인 것이다. 그 구성 약물이 한편으로는 心陰을 滋養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脾陽을 영양하여 작용면에서 (脾를) 굳건하게 하는 점을 취하는 것은 子인 脾를 튼튼하게 하여 어미인 心을 補益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滋養하는 약물만으로는 脾의 울체가 오래되어 意思가 통하지 않을 까 염려스러우므로, 목향의 辛味와 또 散하는 작용을 조금 취한다면, 氣를 잘 통하게 하고 脾를 깨어나게 하여, 脾氣로 하여금 빨리 통하게 하여 (腎水가) 心陰으로 上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脾에 귀착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이점에 있을 뿐이다.”

張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중익기탕과 귀비탕은 保元湯에서 같이 유래하여, 함께 당귀와 백출을 가한 것이지만, 胃氣를 들어올리고 脾陰을 滋補하는 점이 다르다. 이 처방은 心脾를 滋養하고 少火(정

상적인 陽氣)를 鼓動시키는 것이니, 묘한 점은 약간의 목향으로 보좌하여 모든 기운을 순조롭게 조절하고 心脾를 잘 통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의사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목향의 性이 燥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으니, (그들의 처방을) 여러 번 먹어 痞悶하고 음식을 줄이게 됨에 이르는 것은, 補藥이 鬱滯가 많이 되어 음식물을 운행시키고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따름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같다. - 내용 같음.

【원문】

妙香散

○治夢遺失精，驚悸鬱結。○山藥二兩 人參 黃芪 遠志(製) 茯苓 茯神一兩 桔梗三錢 甘草 辰砂(另研) 一錢 麝香一錢 木香二錢五分。爲末，每服二錢，酒下。

【集註】○汪昂曰：心，君火也。君火一動，相火隨之。相火寄于肝膽，腎之陰虛則精不藏，肝之陽¹強則氣不固，故精脫而成夢矣。山藥益陰，兼能瀉精，故以爲君。人參，黃芪用以固氣，遠志，二茯用以寧神。神寧氣固，則精自守其位矣。丹砂鎮心安魂，二香開鬱通竅，桔梗載諸心藥久留膈上，甘草調和諸藥，交和于中。是方不以瀉火固澁立法，但安神固氣，使精與神氣相依，而夢少精秘矣。

【按】朱震亨云：主秘藏者腎也，司疏泄者肝也。二藏有相火，而其系，上屬於心；心，君火也。爲物所感則易于動，心動則相火翕然隨之，雖不交會，精亦暗流而滲漏矣。所以聖人只是教人收心養性，其旨深矣。震亨此論至當，其平生精力在補陰以制相火，深得『內經』天以陽生陰長，地以陽殺陰藏之旨。近世醫者惟知陽生，不知陰亦能生；惟知陰殺，不知陽亦能殺。『經』雖每每指出陽脫，陰脫，陽絕，陰絕皆令人死，奈志迷偏見者不回也。卽此一證，老年之人，心有所動，而相火衰不能翕然隨之，雖有所夢而無所遺，由此可知震亨用黃柏一味，少佐水片，名清心丸，獨瀉相火，而治中年相火盛，夢遺心悸者，屢用屢效也。

다. 羅美 著.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5.

【주석】

1) 肝之陽: 여기에서 陽은 火邪이다.⁷⁾

【해석】

묘향산

○ 夢精 驚悸 鬱結을 치료한다. ○ 산약 2냥, 인삼 황기 원지(법제한 것) 복령 복신 각 1냥, 길경 3돈, 감초 진사(별도로 간 것) 1돈, 사향 1돈, 목향 2돈반. 가루 내어 2돈씩 술로 먹는다.

[集註] ○ 汪昂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心은 君火이다. 君火가 한 번 움직이면 相火가 따른다. 相火는 肝膽에 붙어사는데, 腎陰이 허약하면 精이 저장되지 않으며, 肝陽(火邪)이 강하면 氣가 고밀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精이 脫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다. 산약은 益陰하고 겸하여 澁精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君으로 삼은 것이다. 인삼 황기를 쓰면 氣를 고밀하게 하고, 원지와 복령 복신을 쓰면 神을 편안하게 하니, 神이 편안해지고 氣가 고밀해지면 精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본래 자리를 지키게 된다. 단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을 안정시키며, 사향 목향은 울체된 것을 열어 구멍을 통하게 하며, 길경은 모든 心의 약들을 싣고 황격막 위에 오래 머물게 한다. 감초는 여러 약을 조화롭게 하고, 속에서 사귀어 어울리게 한다. 이 처방은 火를 瀉하여 固澁하는 것으로 立法한 것이 아니고, 다만 神을 편안하게 하고 氣를 고밀하게 하여 精과 神氣가 서로 의지하게 되어, 꿈이 적어지고 精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이다.”

[按] 朱震亨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밀스럽게 감추는 것을 주관하는 것은 腎이고, 소통시키고 빠져 나가게 하는 것(疎泄)을 맡고 있는 것은 肝이다. 두 곳에는 相火가 있는데, 그 줄기는 위로 心에 이어진다. 心은 君火이다. 사물에 感觸되면 쉽게 움직이는데, 心이 動하면 相火도 바로 따라서 움직여서, 비록 서로 성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精이 또한 자기도 모르게 흘러서 새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聖인이 사람들에게 다만 收心養性할 것을 가르쳤으니, 그 뜻이 깊다.” 주진형 선생의 이 이문은 매우 옳다. 그의 평생 노력이 補陰하여 相火를 抑制하는 데 있었으니, 『내

경』의 “天에서는 陽이 生하고 陰이 長하는 이치가 적용되며, 地에서는 陽이 殺하고 陰이 藏하는 이치가 적용된다.”는 뜻을 깊이 체득한 것이다. 요새 의사들은 오직 陽이 生하는 것만 알고, 陰도 生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며, 오직 陰이 殺한다는 것만 알고 陽도 또한 殺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경』에서 비록 매번 陽脫 陰脫, 陽絕 陰絶이 모두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여 강조하지만, 어찌 뜻이 미혹되고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은 돌아보지 않는가? 바로 이 한 가지 증세는, 노인의 경우에는 마음에 움직이는 바가 있어도, 相火가 쇠약하여 바로 따르지 못하여서 비록 꿈을 꾸어도 遺精하지는 않는 것이니, 이로부터 주진형이 ‘황백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고 병편으로 약간 보좌하여 청심환이라고 이름을 붙여, 오로지 相火를 瀉하게 하여, 중년에 相火가 지나쳐서 생긴 夢精 心悸를 치료하는 데에 여러번 사용해도 여러 번 다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에는 없다. - 없음.

【원문】

天王補心丹

○ 治心血不足, 神志不寧, 津液枯竭, 健忘怔忡, 大便不利, 口舌生瘡等證. ○ 人參 酸棗仁 當歸 生地黃 麥冬 天冬 柏子仁 遠志 五味子 丹參 元參 白茯苓 桔梗. 上爲末, 煉蜜丸如椒目大, 白湯下.

[集註] ○ 柯琴曰: 心者主火, 而所以主之者, 神也, 火盛則神困. 心藏神, 補神者必補其心; 補心者必清其火, 而神始安. 補心丹故用生地黃爲君, 取其下足少陰以滋水, 主水盛可以伏火, 此非補心之陽, 乃補心之神耳. 凡果核之有仁, 猶心之有神也, 清氣無如柏子仁, 補血無如酸棗仁, 以其神存耳. 參, 苓之甘, 以補心氣; 五味之酸, 以收心氣; 二冬之寒, 以清氣分之火, 心氣和而神自歸矣. 當歸之甘, 以補心血; 丹參之寒, 以生心血; 元參之鹹, 以清血中之火, [心]血足而神自藏矣. 更加[假]桔梗爲舟楫, 遠志爲向導, 和諸藥, 入心而安神. 以此養生, 則百體從命, 何有健忘怔忡, 津液乾涸, 舌上生瘡, 大便不利之虞哉?

7) 汪詡庵 著. 醫方集解.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3. p.26.

【해석】

천왕보심단

○ 心血이 부족하여, 神志가 不安하고, 津液이 말라 목이 마르며, 健忘증이 심하며, 놀랄만한 일이 없는 데도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怔忡), 大便이 잘 나가지 않고(不利), 입과 혀에 부스럼이 생기니(口舌生瘡)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 인삼 산조인 당귀 생지황 맥문동 천문동 백자인 원지 오미자 단삼 원삼 백복령 길경. 가루를 내어 椒目(지름3-5mm) 크기로 정제된 꿀로丸을 만들어 뜨거운 물로 먹는다.

【集註】 ○ 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心은 火를 주관하는데, 주관하게끔 하는 것은 神이다. 火가 성하면 神이 피곤해진다. 心은 神을 간직하므로 神을 補하려는 자는 반드시 心을 補해야 하고, 心을 補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火를 淸게 하여야 神이 비로소 안정된다. 보심단은 원래 생지황을 君藥으로 삼아 그 아래에 있는 足少陰을 취하여 滋水하게 한 것으로, 주로 水가 왕성해져 火를 補중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이는 心의 陽을 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心의 神을 補하는 것일 따름이다. 모든 과실에 씨앗(仁)이 있는 것은 心에 神이 있는 것과 같으니, 淸氣하는 데에 백자인 만한 것이 없고, 補血하는 데에 산조인 만한 것이 없는 것은 그 神이 존재하기 때문일 뿐이다. 인삼 복령의 甘味는 心氣를 補하고, 오미자의 酸味는 心氣를 수렴하며, 천문동 맥문동의 寒한 성질은 氣分의 火를 淸하니, 心氣가 조화롭게 되어, 神이 자연히 귀속된다. 단삼의 寒은 心血을 生하고, 원삼의 鹹味는 血중의 火를 淸하니, 心血이 충족되면 神은 저절로 저장된다. 다시 길경을 가하여 배의 노로 삼고, 원지를 向導로 삼아, 여러 약들을 조화시켜 心으로 들어가 神明을 안정하게 한다. 이 약으로 養生하면 모든 형체가 질서가 잡힐 것이니, 어찌 健忘·怔忡·津液乾燥·舌上生瘡·大便不利의 염려가 있겠는가?”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거의 내용이 같다. 柯琴의 方論에서 다른 부분이 약간 있다. - 내용같음.

【원문】

酸棗仁湯

○ 治虛勞, 虛煩不得眠. ○ 酸棗仁二升 甘草一兩 知母二兩 白茯苓二兩 川芎二兩. 上五味, 以水八升, 煮棗仁得六升, 內藥煮取三升, 分溫三服.

【集註】 ○ 羅謙輔曰: 『經』云: 肝藏魂, 人臥則血歸于肝. 又曰: 肝者, 罷極之本. 又曰: 陽氣者, 煩勞則張. 罷極必傷肝, 煩勞則精絕. 肝傷精絕, 則虛勞虛煩不得臥明矣. 棗仁酸平, 應少陽木化而治肝, 極者宜收宜補, 用酸棗仁至二升, 以生心血, 養肝血, 所謂以酸收之, 以酸補之是也. 顧肝鬱欲散, 散以川芎之辛散, 使輔棗仁通肝調榮, 又所謂以辛補之也. 肝急欲緩, 緩以甘草之甘緩, 使防川芎疏泄過急, 此所謂以土葆之也. 然終恐勞極則火發, 傷陰陽旺, 陽分不行于陰, 而仍不得眠, 故佐知母崇陰水以制火, 茯苓利陽水以平陰, 將水壯而魂自寧, 火淸而神且靜矣. 此治虛勞肝極之神方也.

【해석】

산조인탕

○ 虛勞로 인하여 虛煩하고 不眠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산조인 2되, 감초 1냥, 지모 백복령 천궁 각 2냥. 물 8되로 산조인을 삶아서 6되가 되면, 나머지 약들을 넣어 삶아서 3되가 되도록 하여, 3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먹는다.

【集註】 ○ 羅謙輔⁸⁾가 말하였다. “『내경』에서 ‘肝은 魂을 담고 있다.’⁹⁾ ‘사람이 잠자리에 누우면 血은 肝으로 돌아간다.’¹⁰⁾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肝이란 것은 皮로를 견디게 하는 근본이다.’¹¹⁾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陽氣라는 것은 煩勞하면 팽창된다.’¹²⁾고

8) 『古今名醫方論』에는 羅謙輔가 羅東逸로 되어 있다. 羅美著.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11.
9) 『素問·宣明五氣論』에 나온다.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342.
10) 『素問·五臟生成篇』에 나온다.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57.
11) 『素問·六節藏象論』에 나온다.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49. 李今庸은 罷는 能, 즉 耐의 뜻이며, 極은 皮로의 뜻이라고 하였다.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p.59-60.
12) 『素問·生氣通天論』에 보인다.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1.

했다. 피로를 건디면 반드시 肝을 손상하고, 煩勞하면 精이 없어진다. 간이 손상되고 精이 없어진다면 虛勞로 인하여 虛煩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산조인은 맛이 酸하고 성질이 平하며(차지도 뜨겁지도 않음), 六氣로는 少陽, 五行으로는 木의 변화에 응하여 肝을 치료한다. 피로가 극에 이른 자는 마땅히 수렴하고 補해야 하므로, 산조인을 2되까지 사용하여, 心血을 생성하고 肝血을 기르니, 소위 말하는 ‘酸味로 수렴하고 酸味로 補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생각건대 肝이 鬱滯되었을 때는 마땅히 散法을 써야 하는데, 천궁의 辛味로 散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散하여, 하여금 산조인을 보조하게 하여 通肝하고 調榮하니, 또한 소위 ‘辛味로 補한다’고 하는 것이다. 肝이 急할 때에는 緩法을 사용해야 하는데, 감초의 甘味로 緩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緩하여, 하여금 천궁의 疏泄작용이 지나치게 急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니, 이는 이른바 ‘土로 완충작용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피로가 극에 이르면 火가 발생하고, 陰이 손상되면 陽이 왕성해져, 陽이 분리되어 陰으로 행하지 않아, 계속 잠을 자지 못할까 끝내 걱정되므로, 지모로 보좌하여 陰水를 길러 火를 억제하고, 복령으로 陽水를 원활히 순행하도록 하여 陰을 다지는(平) 것이니, 장차 水가 튼튼하게 되면 魂은 저절로 평안하게 되고, 火가 清케 되면 神 또한 고요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虛勞하여 肝의 피로가 극에 이른 경우에 쓸 수 있는 神方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나, 내용은 같다. - 내용같음.

【原文】

朱砂安神丸

○治心神昏亂, 驚悸怔忡, 寤寐不安. ○朱砂(另研)黃連 各半兩 當歸二錢 生地黃三錢 甘草二錢. 上爲細末, 酒泡蒸餅丸如麻子大, 朱砂爲衣. 每服三十丸臥時津液下.

【集註】○葉仲堅曰: 『經』云: 神氣舍心, 精神畢具. 又曰: 心者生之本, 神之舍也. 且心爲君主之官, 主不

明, 則精氣亂; 神太勞, 則魂魄散, 所以寤寐不安, 淫邪發夢. 輕則驚悸怔忡, 重則痴妄癡狂也. 朱砂具光明之體, 色赤通心, 重能鎮怯, 寒能勝熱, 甘以生津, 抑陰火之浮游, 以養上焦之元氣, 爲安神之第一品. 心若熱, 配黃連之苦寒, 瀉心熱也, 更佐甘草之甘以瀉之. 心主血, 用當歸之甘溫, 歸心血也, 更佐地黃之寒以補之. 心血足則肝得所藏, 而魂自安, 心熱解則肺得其職, 而魄自寧也.

【해석】

주사안신환

○心神이 昏亂하고, 조그만 일에도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驚悸), 놀랄만한 일이 없는데도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며(怔忡), 자나 깨나 不安한 증상을 치료한다. ○ 주사(별도로 간 것) 황련 각 0.5냥, 당귀 2돈, 생지황 3돈, 감초 2돈. 이 약들을 곱게 갈아 술거품으로 떡처럼 찌서 麻子大(3mm)로 丸을 만들어 주사로 옷을 입힌 후, 한 번에 30알 씩 잠잘 때 침으로 삼킨다.

【集註】○葉仲堅¹³⁾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內經』에서 ‘神氣는 心에 머무니, 精神이 모두 갖추어진 다.’¹⁴⁾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心이라는 것은 삶의 근본이며, 神이 머무는 곳이다.’¹⁵⁾고 했다. 또 心은 君主之官이니¹⁶⁾, 주인이 밝지 않으면 精氣가 어지러워지고, 神이 지나치게 피로하면 魂魄이 흩어지니, 그래서 자나 깨나 不安하고 淫邪가 꿈을 꾸게 하여, 가법게는 驚悸 怔忡하고, 심하면 의심하고 망령되며 癡狂한다. 주사는 빛나고 밝은 본체를 갖추었고, 색은 붉어 心에 통하며, 무거운 성질은 怯을 가라앉히고, 차가운 성질은 熱을 이기며, 甘味는 진액을 생성하여, 陰火가 떠도는 것을 억제하여서, 上焦의 元氣를 자양

13)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14) 『靈樞·天年』에 나온다. 南京中醫學院中醫系 編著.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335. 원문에는 ‘精神’이 ‘魂魄’으로 되어 있다.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15) 『素問·六節藏象論』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48. 원문에는 ‘舍’가 ‘變’으로 되어 있다.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16)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온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28.

하니, 安神하는데 가장 좋은 약이다. 心이 만약 熱하다면, 黃連의 苦寒한 성질을 배합하여 心熱을 瀉하고, 다시 감초의 甘味로 보좌하여 瀉하게 한다. 心은 血을 주관하는데 당귀의 甘溫한 성질을 사용하여 心血을 귀속시키고, 다시 생지황의 寒으로 보좌하여 補하게 한다. 心血이 충족되면 肝이 담아야 할 대상(魂)을 얻어 魂이 저절로 편안해지며, 心熱이 풀리면 폐가 그 직분을 얻어서 魄이 저절로 편안해 진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약간의 글자가 다르나, 내용은 같다. -내용 같음.

IV. 考 察

1. 편제상의 특징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 卷一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8개의 처방은, 황기건중탕 쌍화음 인삼양영탕 귀비탕 묘향산 천왕보심단 산조인탕 주사안신환이다. 卷一의 앞 부분인 補氣 처방과 補陰血 처방이 모두 가지 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것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8개의 처방은 구성 약물 수와는 큰 관계가 없다.

황기건중탕은 虛勞로 인하여 진액이 부족해져 생긴 증상을 中氣를 회복시켜 진액을 보충함으로써 치료하는 처방인데, 補陰血 처방과 연관시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補陰血 처방 뒤에 배치되어 있다. 그 뒤에 나오는 쌍화음도 진액을 보충시킨다는 점은 같은데, 中氣를 회복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물탕을 가하여 직접 陰血을 보충한다는 점이 다르다.

쌍화음은 황기와 사물탕이 함께 있어 氣와 血을 직접 함께 補하는 처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배열되어 있는 인삼양영탕은 氣血을 함께 補하는 효능을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십전대보탕에서 補氣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行氣藥인 진피를 가하고, 補血의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行血藥인 천

궁을 제거하여, 補血과 補氣의 효능을 극대화시킨 처방이다. 氣虛와 血虛가 몹시 심한 자에게 적절하다.

이렇게 본다면, 황기건중탕과 쌍화음 그리고 인삼양영탕의 배열순서는 陰血을 간접적으로 補하는 처방에서 직접적으로 氣血을 補하는 순서라 할 수 있고, 또 補하는 정도가 약한 처방에서 강한 처방으로의 배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의 귀비탕부터는 安神하는 처방으로 볼 수 있는데, 귀비탕은 사려가 심하여 비를 손상하여 腎水로 心陰을 자양하는 작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생기는 여러 증상을, 補脾氣함으로써 心血을 자연히 補하여 치료하는 처방이므로, 脾氣를 補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다음에 나오는 묘향산은 相火가 妄動하여 夢精驚悸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을 安神固氣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相火를 직접적으로 瀉火澁精하는 방법이 아닌 安神固氣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천왕보심단은 心血이 부족하여 정신이 불안하고 목이 마르며 건망증이 심한 등의 증상을 滋水 補心 淸火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腎水を 補하고 火를 淸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조인탕은 허로로 간의 피로가 극도에 이르러 虛煩 不眠 등의 증상이 생긴 것을 肝血을 보하고 陰水를 길러 정신을 안정시키고 火를 淸하는 처방이다.

주사안신환은 心神이 혼란하여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자나 깨나 불안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직접 心에 작용하여 安神하게 하는 처방이다.

이러한 처방의 배열은 주치증면에서 정신적인 증상의 정도가 약한 것에서 큰 것의 순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 측면에서 補氣의 의존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그리고 相火를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순으로 되어 있다.

2. 方論의 특징

1) 氣血을 補할 때 補氣劑를 강조함.

氣血이 부족한 것을 함께 補하는 처방 3개의 方論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氣可召而至, 血易虧而難成’

에 대한 강조이다. 血을 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황기건중탕에서는 補脾氣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쌍화음에서는 사물탕에 補氣하는 황기를 배합하였으며, 인삼양영탕에서는 補氣劑인 인삼을 군약으로 삼아 양을 배가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 氣血을 보하는 데에 補氣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구현한 것이며, 앞의 補陰血의 처방에서도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다.¹⁷⁾

또한 脾氣를 補하는 약들이 귀비탕 묘향산 천왕보심단 등의 安神 처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酸味와 辛味로 肝을 補함.

肝을 補하는 처방인 산조인탕의 方論에서, 酸味인 산조인으로 肝血을 우선 수렴하는데, 수렴을 지나치게 하면 肝이 울체되므로, 辛味인 천궁으로 약간 疎泄하여 산조인의 수렴작용을 보조하게 하며, 또한 천궁의 疎泄이 지나치지 않게 甘味인 감초로 완만하게 한다고 하여, 酸味와 辛味, 그리고 甘味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肝을 補하는지 음양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甘味는 쉽게 滯하므로 慎用해야 함.

황기건중탕의 方論에서는, 평소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나 甘味를 약간만 먹어도 체하는 사람은 虛勞가 아무리 심하여도 甘味が 中滿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甘味が 비록 中氣를 세우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또한 잘 체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니,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3. 『古今名醫方論』과의 내용비교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본문을 비교하여 보면, 『古今名醫方論』에 없는데 본문에 추가한 것은 쌍화음과 묘향산이다. 나머지 황기건중탕 인삼양영탕 귀비탕 천왕보심단 산조인탕 주사안신환 등 6개의 처방은 글자가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내용은 같다.

쌍화음은 황기건중탕과 인삼양영탕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그런데 황기건중탕은 甘味로 陰血을 간접적으로 補하는 처방이고, 인삼양영탕은 氣血을 함께 補하는 처방이다. 쌍화음은 사물탕으로 陰血을 직접

補하면서 아울러 황기로 補氣하는 처방으로, 황기건중탕과 인삼양영탕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 추가하여 처방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묘향산은 귀비탕과 천왕보심단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데, 귀비탕은 思慮로 脾를 손상한 것을 脾氣를 補함으로써 腎水를 心火에 올려 安神하게 하는 처방이며, 천왕보심단은 心血이 부족한 것을 주로 腎水를 滋하고 火를 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보조적으로는 氣를 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安神하게 하는 처방이다. 묘향산은 相火를 安神固氣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처방으로, 그 성격이 귀비탕과 천왕보심단의 중간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처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쌍화음과 묘향산이 꼭 필요하여,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이 『古今名醫方論』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편제를 달리하고, 중간 설명에 필요한 처방을 삽입함으로써, 처방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V. 結 論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의 補氣血安神 처방 8개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편제상에 있어서, 氣血을 補하는 처방인 황기건중탕과 쌍화음 그리고 인삼양영탕의 배열순서는 陰血을 간접적으로 補하는 처방에서 직접적으로 氣血을 補하는 순서라 할 수 있고, 또 補하는 정도가 약한 처방에서 강한 처방으로의 배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安神 처방인 귀비탕 묘향산 천왕보심단 산조인탕 주사안신환의 배열은 주치증면에서 정신적인 증상의 정도가 약한 것에서 큰 것의 순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 측면에서 補氣의 의존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그리고 相火를 다스리는 방법에 있

17)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陰血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3). p.76.

어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순으로 되어 있다.

2. 方論의 특징적인 면은 氣血을 補할 때 補氣劑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酸味와 辛味로 肝을 補할 때 酸味와 辛味が 음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虛勞의 치료에 있어서 甘味로 中氣를 세워야 하지만, 甘味が 잘 체하여 中滿을 일으키기 쉽다는 점 등이다.

3.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편제를 달리 하고 중간에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2개의 처방을 추가함으로써, 독자의 이해에 편리하도록 한 점은 독창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陰血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3). p.76. pp.67-77.
2.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1). pp.65-74.

<단행본>

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1, 104, 128, 148, 157, 342. pp.315-316.
2. 羅美 著.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5, 11.
3. 南京中醫學院中醫系 編著.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45, 335.
4.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p.273-275.
5. 汪訥庵 著. 醫方集解.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3. p.26.
6.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p.59-60.